



FROM HERE TO ETERNITY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결혼 준비와 피곤한 예식에 지친 신혼부부들에게 최고의 신혼여행지를 소개한다.
가장 멀거나 높거나 오래된 곳으로, 영원을 약속하기엔 더없이 좋은 장소들이다.

CONTRIBUTING EDITOR NAH JI UN



1 자이푸르 최고의 호텔, 수안 라지아할 팰리스의 화려한 인테리어. 2 최고급 방인 마하라니 스위트. 이 방에 묵을 경우 별도의 다이닝룸을 쓸 수 있고, 운전기사과 집사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된다.

SUJAN RAJMAHAL PALACE, 인도

'핑크 시티'라 불리는 인도의 자이푸르만큼 최적의 신혼여행지는 없다. 자이푸르의 모든 것들이 핑크색이라 설사 여행 중 싸운다 하더라도 '핑크빛 기류'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안 라지아할 팰리스' 역시 핑크색으로, 뽀뽀하게 풀을 먹인 흰색 옷을 입고 핑크색 터번을 두른 호텔 매니저가 마중을 나오는 순간 마하라 재(인도의 군주)의 성에 초대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아르데코 스타일의 이 성은 1729년 자이푸르의 사와이 자이 싱 2세가 아내의 피서지 궁전으로 만든 것이다. 그 후 19세기에는 인도에 주둔한 영국인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로 쓰였고 1958년부터는 사와이 만 싱 2세의 별채로 사용됐다. 그의 아내였던 가야트리 데비는 자서전에서 이 성에 대해 "람바그 궁보다는 작지만 기분 좋은 분위기가 흐르는 곳이었다"고 회고했다. 이곳은 엘리자베스 2세, 재클린 케네디 등이 다녀간 사교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실제 이 호텔의 방들에는 자랑이라도 하듯 다녀간 저명인사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딜 마흐메드는 14개의 방을 각각 다른 콘셉트로 꾸몄고, 모든 방에 자이푸르 역사와 문화를 담은 것 또한 잊지 않았다. 그중에는 운전기사과 집사 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도 있다. 품격 있고 세심한 서비스에 당신의 신혼여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라게 될지도 모른다.

주소 SARDAR PATEL MARG, C SCHEME, JAIPUR, RAJASTHAN 302001, INDIA
전화 +91 141 414 3000



CHALET ZERMATT PEAK, 스위스

예식이 끝난 후 집에 가서 벌렁 드러누워 있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살레(스위스 산간 지방의 지붕이 뾰족한 목조 주택)를 신혼여행지로 정하는 게 좋겠다.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말이다. 스위스 체르마트에 위치한 '살레 체르마트 피크'는 '피크'란 이름 그대로 해발 5315m에 자리 잡고 있다.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상징으로도 알려진 알프스 최고의 마터호른 산을 창밖으로 내다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곳이다. 살레 체르마트 피크는 단독으로 빌릴 수 있는 집으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자쿠지가 있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 와인을 마시며 아름다운 실산을 바라볼 수 있다. 와인을 사러 스키를 타고 마을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이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살레 체르마트 피크에는 당신을 술꾼으로 만들어 줄 환상적인 와인 창고가 있다. 게다가 개인 셰프와 스태프가 때맞춰 음식을 제공하고 서빙해주니 끼니 걱정 역시 안 해도 된다. 스키를 타는 것 말고는 별다른 할 일이 없어 다소 심심할 수도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책과 DVD가 가득한 서재도 준비돼 있다. 밀린 영화를 보며 그간 결혼 준비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소 TRIFTWEG 47, 3920 ZERMATT, SWITZERLAND
전화 +41 79 244 77 21



1 실내 자쿠지에 몇 시간이고 들어가 있어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눈 덮인 마터호른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곳에서는 와인을 마시며 영화를 보는 일마저 특별한 경험이 된다.



1 팔마 대성당을 바라보며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호텔의 루프톱 테라스 2 호텔 입구의 계단. 135년간 잘 보존된 덕분에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3 팔마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어 객실 창밖으로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거리를 내다볼 수 있다.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스페인

'산트 프란세스크 호텔 싱귤라르'에 가는 건, 1880년도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21세기의 피곤한 예식 문화로부터 해방감을 주기에 충분한 장소라는 얘기가. 스페인 마요르카 섬의 팔마에 위치한 이 호텔은 원래 스페인 귀족 알로마 페메니아 가문의 소유였던 네오 클래식 스타일의 저택이었다. 135년간 잘 보존된 이 저택을 호텔로 만들 생각을 한 건 90년간 호텔 경영을 해 온 솔데빌라 페레르 가문이다. 1880년대의 물딩을 그대로 살린 전통 건축물 안에 안토니오 치테리오, 스티븐 버크스, 로날드 에르만 부홀렉, 하이메 아온 등의 디자인 제품을 가져다놓아 그 어느 장소보다 모던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다. 호텔의 루프톱 테라스에 올라가면 팔마의 상징인 팔마 대성당과 트라문타나 산이 보인다. 스페인의 과거를 마주하며 칵테일을 마시거나 수영을 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도모하면 되겠다. 호텔을 빠져나가면 고딕 스타일의 벨베르 성, 흥미로운 호안 미로 미술관, 신비로운 드라치 동굴, 10세기에 지어진 '아랍인의 목욕탕'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레스토랑과 드라트에서는 미술랭 스타 셰프 사이먼 페루츠슈니크가 선보이는 다채로운 지중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웨딩드레스 때문에 참았던 식욕을 폭발시키기에 안성맞춤이다. 2015년 봄에 문을 연 곳으로 신혼부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미리 방문하는 게 좋겠다.

주소 PLACA DE SANT FRANCESC, 5, 07001 PALMA, ILLES BALEARS, SPAIN
전화 +34 971 49 50 00



2

3



SINGITA SASAKWA LODGE, 탄자니아

호텔 창밖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영양의 무리를 볼 수 있다면? 호텔에서 한 발자국 걸어나오기만 해도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을 마주할 수 있다면? 탄자니아의 '싱기타 식사와 로지'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꿈꾸는 모든 상상이 실현되는 곳이다.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에서 2015년 독자들이 뽑은 최고의 호텔 1위에 올랐고 <트래블 앤 레저> 선정 '세계 최고의 호텔'에 2년 연속 1위에 오른 게 전혀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 곳이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사람은 세계적인 트레이더이자 역만장자인 폴 듀더 존스다. 야생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는 2002년 4억 명이 넘는 세렝게티 땅을 사서 남아프리카의 친환경 여행사 싱기타와 손잡고 리조트를 만들었다. 에드워드 시대 스타일로 지어진 싱기타 식사와 로지는 그중 식사와 언덕에 위치해 세렝게티 초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펙터클한 장관을 자랑한다. 사파리 체험을 통해 사자와 표범, 코끼리, 얼룩말은 기본이고 멸종 위기에 처한 검은 코뿔소와 희귀한 큰귀여우도 볼 수 있다.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된 집 형태로 구성돼 있어 개인 야외 수영장에서 일몰과 일출을 감상하는 여유를 누릴 수도 있다. 아름다운 고독과 야생을 경험할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장소를 찾고 있다면 주저 말고 이곳으로 향하면 되겠다. 도대체 어떻게 가냐고? 아루샤나 킬리만자로에 도착하면 전문 스태프가 싱기타 전세 비행기를 통해 이곳으로 데려다준다. 인터넷 쓸 일은 없어 보이지만 와이파이도 된다. h

주소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음
전화 +255 21 683 3424
EDITOR 이다영 DESIGN 진문주



1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 사파리 체험을 통해 유유자적하는 표범, 코뿔소, 무리지어 이동하는 영양 등을 볼 수 있다. 2,3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한 장면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 호텔 내부.



2

TIERRA ATACAMA HOTEL, 칠레

신혼여행지로 화성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화성을 대체할 만한 관광은 대안이 여기 있다. 화성에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들고 무엇보다 훨씬 안전하다. 바로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티에라 아타카마 호텔'이다. 이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 자신이 혹시 외계인과 결혼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주변의 모든 경관이 화성 표면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리카카부르 화산, 연기를 내뿜는 간헐 온천과 반짝거리는 염전, 끝없이 펼쳐진 사막은 서울에 돌아와서도 두고두고 생각날 풍경이다. 티에라 아타카마 호텔은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도도 점토와 돌, 나무 등의 건축재로 건물을 지었다. 가구와 공예품, 러그 등도 모두 지역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농산물인 키노아, 무화과 등으로 만든 칠레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가이드와 함께 아타카마 사막을 탐험한 후 호텔로 돌아와 피스코(페루산 브랜디)나 리카리카(허브 차)를 마시며 우마(아이마라족 말로 물이라는 뜻) 스파를 하거나 뜨거운 화산 돌 마사지를 받으면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풀릴 것이다. 여름 최고 기온은 30°C, 겨울 최저 온도는 22°C 정도로 1년 내내 쾌적해 적어도 신혼부부가 날씨 문제로 싸울 일을 없을 것이다. 참, 사막이라고 해서 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소 SAN PEDRO DE ATACAMA, ANTOFAGASTA REGION, CHILE
전화 +56 2 2207 8861



3

1 화성에 새로 생긴 호텔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주변 풍경. 2,3 주변에서 생산된 자재로 호텔을 지어 어디든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



3

